

한옥마을서 시간여행을... 현대車 '현대극장' 오픈

브랜드 헤리티지 담은 팝업스토어 열어

현대자동차는 전주 한옥마을에 현대차만의 브랜드 헤리티지를 담은 1980년대 말 영화관 콘셉트의 팝업 스토어 '현대극장'을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3층 규모의 '현대극장'은 현대차가 고객과 함께 지난 시간을 추억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최근 유행하는 레트로 콘셉트에 맞춰 공간 전체를 80년대 후반의 영화관 분위기로 꾸몄다.

현대차는 현대극장을 통해 클래식카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이색 체험 콘텐츠를 마련함으로써 4050 고객에게는 향수를, 2030 고객에게는 색다른 브랜드 체



현대차가 전주 한옥마을에 오픈한 '현대극장'.

험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야외에 조성된 80년대 풍의 택시 승강장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모델인 포니가 전시되며, 실내 1층에서는 국내 최장

수 자동차 브랜드인 '쏘나타'의 1세대, 2세대 모델과 올해 출시한 신형 쏘나타(8세대)가 함께 전시돼 30년 넘게 이어온 국내 대표 중형 세단의 과거와 현재를 한 곳에서 만나 볼 수 있다.

2층은 '투캡스' '로보트타워 V' 등 추억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관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3층에는 젊은 세대에게 크게 유행하고 있는 '방탈출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시간여행 콘셉트로 기획된 현대극장 방탈출 게임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현대극장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다. 전주 한옥마을 내 위치한 현대극장은 오는 10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운영된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주주 잇은 에스엠



기지 수첩

손 엄 지 (파이낸스&마켓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가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다. 결과는 어닝쇼크(실적 감소). 이에 따라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연초만 해도 에스엠의 주가는 고공행진 중이었다. 방탄소년단(BTS)의 활약으로 국내 엔터주가 재평가된 영향이다.

분위기가 꺾인 것은 에스엠이 KB자산운용의 주주제안을 사실상 거절하면서다.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는 가파르게 빠졌다.

에스엠은 상장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미래를 향한 성장과 투자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지만 엔터 3사(SM·JYP·YG) 중 배당을 하지 않은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아울러 에스엠의 영업이익이 과도하게 라이크기획(이수만 회장의 개인법인)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에스엠이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있는 사실이었고, 별도 매출의 6%를 인세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거와 공정함을 묻는 질문에 "문제없다"는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또 정당한 기관투자자의 주주 제안이었음에도 이들을 존중하지 않은 태도로 눈총을 받고 있다. 에스엠은 주주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잘못 인식한 부분'이라는 문장으로 불쾌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더욱이 주주서한 답변서를 KB자산운용에 먼저 보내지 않고 모든 기관투자자에게 일괄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KB자산운용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에스엠 주가는 이달에만 13% 넘게 빠졌다. 연초 대비 반토막이다. 에스엠은 수 많은 개미(개인투자자)들로 이뤄진 주식회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소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실망감으로 빠진 주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sonumji301@metroseoul.co.kr

동아쏘시오홀딩스 임직원 자녀 위한 '피닉스 캠프'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12~15일 3박 4일간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동아쏘시오그룹 상주 인재개발원에서 임직원 자녀를 위한 '2019 피닉스 캠프'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피닉스 캠프는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해 임직원 자녀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사다. 이 행사는 ▲부모 직장 체험을 통한 임직원과 자녀의 유대감 형성 ▲가족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피닉스 캠프는 창의적인 글쓰기와 8가지 성공의 습관이라는 주제 아래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등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자녀 60명(초등학교 4~6학년)이 참가했다.

캠프에 참가한 임직원 자녀들은 ▲동아쏘시오그룹 천안공장 견학 ▲경청의 방법 ▲삶의 안전지대 넓히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자녀들을 캠프에 보낸 임직원을 초대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아쏘시오홀딩스, 2019 피닉스 캠프에서 임직원 자녀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피닉스 캠프는 임직원 자녀들에게 보다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번 더 진행한다. 2차 피닉스 캠프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오늘의 운세 8월 19일 (음 7월 19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손자병법에 승산 없는 싸움은 하지마라 했다. 48년생 앞만 보고 전진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60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72년생 길 떠나라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자제. 84년생 요행을 바라다간 실수만 따른다.
- 소** 37년생 짚이 싫으면 종이 떠나라. 49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61년생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내가 해야 한다. 73년생 처음도 중요하나 끝맺음을 잘 하라. 85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푸르다.
- 호랑이** 38년생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걱정. 50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62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걸 명심. 74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86년생 붉은색과 숫자 3이 행운을 준다.
- 토끼** 39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아. 51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니 힘껏 두드리라. 63년생 한 때 분을 참으면 해될 것이 없이 편안. 75년생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87년생 기대가 너무 커서 서운함도 크다.
- 용** 40년생 삼국지의 조조는 요행으로 이기는 법이 없었다함을 참고. 52년생 우울해도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어울려라. 64년생 사람은 시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76년생 직장에서 기본 소식이 들려온다. 88년생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 뱀** 41년생 비단 받기 쉬우니 항상 겸손. 53년생 가족과의 화목이 새로운 힘을 준다. 65년생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 77년생 재테크의 노력으로 경제적 여건이 호전. 89년생 송강의 시조에 아버지 살아 실제 섬길 일량 다하여라.

- 말** 42년생 올바른 처신이 구슬수를 예방. 54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횡재를 가져온다. 66년생 비빌 언덕이 생긴다. 78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져니 실망은 금물. 90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매사에 자중해야.
- 양** 43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55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해결. 67년생 희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79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도 상쾌하다. 91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노력을.
- 원숭이** 44년생 확실한 의사 표현이 매우 중요. 56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가 높아지고 재물도 들어온다. 68년생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누비게 된다. 80년생 힘든 일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 92년생 과대포장은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
- 닭** 45년생 말 잘하는 사람이 덕이 있지는 않다. 57년생 변화를 주지 말고 하던 대로. 69년생 골절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 매사 조심. 81년생 관청이나 큰 단체로부터 일거리 소식이 온다. 93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최후의 승자가 된다.
- 개** 46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2배로 나간다. 58년생 광기와 천재성의 거리는 오직 성공으로만 측정. 70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82년생 오늘도 당신이 주인공. 94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실수가 없다.
- 돼지** 47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마음이 편하다. 59년생 신규 투자의 유혹을 잘 이겨내라. 71년생 능력을 보일 때니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라. 83년생 낭비요소를 찾아 밀 빠진 독을 먹자. 95년생 일찍 귀기하여 가족과 함께.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6		1			
	5	3					4	
8			4		3		6	5
		6		1		5		2
			5		6			
5	7		3			9		
4	6		2		5			3
	3					6	2	
		9			1	4		

			2	3	5			6
				4				3
								1
	5							
3	6	5			4		7	8
						3	7	
							6	
	4							
	1	4						9
		2			6		5	4
				8	4			

스도쿠 정답

1	2	3	4	5	6	7	8	9
2	3	4	5	6	7	8	9	1
3	4	5	6	7	8	9	1	2
4	5	6	7	8	9	1	2	3
5	6	7	8	9	1	2	3	4
6	7	8	9	1	2	3	4	5
7	8	9	1	2	3	4	5	6
8	9	1	2	3	4	5	6	7
9	1	2	3	4	5	6	7	8

문제 제공 = **보스**



김상회의 4Q

재물은 좋은 사무실 위치

30여 년 금융업무에 종사하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발걸음을 했다. 사무실을 열어야 하는데 어디가 좋은가 하는 것이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 사무실 위치 선정은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고민으로 자주 상담을 청한다. 어떤 자리에 사무실을 두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재물의 크기도 달라지고 장애물의 유무도 달라진다. 풍수적 관점에서 볼 때 재물을 얻는 사무실 자리는 앞이 특 트인 곳이다. 사무실 앞으로 보이는 풍경은 양택과 많은 관련이 있다. 사무실 앞이 트여있으면 피하는 일도 시원하게 풀려나가고 재물도 잘 드나든다. 집을 고를 때도 전방 좋은 곳을 본능적으로 선호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이유이다. 사무실 앞이 막혀 있으면 기운의 들고 나는 것이 방해받으면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CEO 풍수학'에서 말하고 있듯이 사무실 건물 쪽으로 도로가 부딪치듯 자리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무실 앞에 고가도로가 있으면 운세가 막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무실을 얻는 것은 사업의 일부분이고 자기의 자금형편에 따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런 상황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풍수 조건을 살펴야 한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교통이나 출퇴근 거리 등을 포기하더라도 앞이 트인 곳을 얻는 게 사업에 도움이 된다. 확 트인 경관이 허락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트인 곳을 찾아야 운세의 흐름이 좋아진다. 땅의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사무실이 자리해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도 넉넉해진다. 몸도 건강해지고 재물의 움직임도 따라서 바뀐다. 사업을 일구는 토대인 사무실은 많은 돈이 들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곳이다. 재물이 힘을 얻는 자리에 사무실을 얻으면 사업도 물 흐르듯 잘 풀려나갈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6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68호